

#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 협회

## 성명문

본회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 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중지하고, 공식사과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남한 첫 도착시와 그후 정착생활시 조사 및 관리라는 명목하에 반가워 찾아온 자유북한인 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인격모욕, 구타, 고문, 무법적호출, 감금, 인권과필권, 행동의 억압, 결사의 방해등등 인권유린 행위를 중지, 공식적사과, 정신육체적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런 인권유린행위를 가능케하는 인권사각지대 안에 자유북한인들이 속하지 않도록 견제받는 민주적 체도를 정부는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주민을 상대한 기만행위를 시정, 즉 뼈라와 방송에서는 어서 오라고, 오면 환영하고 부유하게 해 준다고하나 정착 목숨을 걸고찾아오면 해외공관서부터 박대하고, 정착생활은 최저생활자로 규정하고 취급하는 현실을 진실로 개선하며, 북에 있는 가족을 염려하여 자원하지 않는 자유북한인의 경우에는 인터뷰와 대북선전 이용에 억지로 참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인권 상황은 최악입니다.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강력한 영향력은 민주남한의 모범적 인권보장이며 이에 기초한 국제적 성원을 받는 것입니다.

남한주민의 인권은 과히 놀랄만큼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상응하게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의 인권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2. 인간적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들끼리 갈등과 분열, 좌절과 열등감을 불러오는 원인은 우리에게 있기전에 먼저 잘못된 정부의 인간차별 정책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탈북자인데 몇몇은 몇억이상의 재물에 안정된 직업 까지 보장해 주고, 다수는 천만원대만 주고 직업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차별정책의 당위성은 정보가치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며 더욱이는 시대착오적입니다. 장관이던 노동자이던 인간평등 원칙에 충실하였던 서독정부의 탈 동독인 수용정책을 배워야 합니다. 한편 특정기관이 독점 관리하다시피 하는 강연특혜, 해외여행 등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민증은 받았지만 지킬의무만 있고 동등한 권리가 없습니다.

단적실례로 남한주민에 비해 해외여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변보호 차원이라고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남한보다 신변안전이 더 잘보장되는 조건이므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자유북한인들의 기초적인 생계를 위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정착조치라고 봅니다.

상이한 제도에서 살다온 자유북한인 들은 시장사회의 경험과 재력, 학연, 지연, 친연등이 없는 처지로써 남한사람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가 일련의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정착법이 바뀌 급격히 어려워진 94년부터 지금까지 6년째 접어들지만 결과는 너무나 굵뜨고 미미한 상태입니다.

취업을 한 경우도 학력,경력등이 인정되지 않아 나이가 많아도 최하임금이며, 개인사업을 하자고해도 해외여행과 담보대출등이 제한 받아 설상 가상입니다. 정책적인 대책이 없는한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들의 정착은 근본적으로 해결될수 없다고 봅니다.

4. 안기부는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자율조직 “자유 북한인 협회”에 대한 와해책동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조직결성 전 후를 계기로 해서 안기부의 해당부서는 초비상을 걸고 담당형사들 까지 총 동원하여 조직참여자에 대한 엄포, 불

이익, 이간, 희유등 온갖 방해활동을 하고있는 근거들이 전반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어째서 결사의 자유가 있는 시민으로써 자유북한인들이 자율조직을 처음으로 결성하는데 유독 왜 방해하는지, 이것은 현재 또 하나의 인권유린 행위이므로 강력히 규탄 합니다.

우리는 안기부전체가 아니라 일부 잘못된 안기부 직원들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부 잘못된 안기부 직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뼈뚜러지게 남한사회를 보게되고 이 반감과 원한은 정착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옵니다. 또한 이 후과는 장차 통일된 후에도 북한주민에게도 매우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5. 북한체제의 실상을 직접경험한 자유북한인들을 통일과 안보의 둘도없는 계몽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끔 정책적, 사회적 대책을 요구 합니다.

무더져가는 국민들의 통일안보의식을 계발시키는데 자유북한인들의 역할은 돈으로도 계산할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IMF극복에도 비참한 북한의 실상홍보는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강연나가면 주의에서 싫어하여 갈등속에 포기토록 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